

유럽 방산시장 진입 전략: OCCAR, PESCO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근 유럽 방위력 증강, 방위산업 공동화, 공동조달 확대 움직임 속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전략적 접근 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유럽 방산협력 체계와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로서, OCCAR(Organisation Conjointe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 / Organisation for Joint Armament Cooperation) 옴저버 제도와 PESCO(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제3국 참여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I. 들어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며 방위력 강화와 산업기반 재편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27개국의 2024년 방위비 지출은 약 3,430억 유로에 달하며, 조달·연구개발·공동생산 분야에서 유럽 내 공급망 확대 및 역내 조달 비중 제고가 뚜렷한 정책적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은 지상·해상 플랫폼, 유도무기, 레이더·센서, 탄약, 무인체계 등 다수 분야에서 기술·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럽 방산시장은 여전히 다양한 제도적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유럽 방산기술·산업기반(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EDTIB) 보호를 강조하며, EU 내 설립 법인, EU 지배구조, 역내 생산능력, 보안·정보보호 체계 등을 요구하는 등 제3국 기업에게 상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 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OCCAR, PESCO 등 유럽의 다자 방산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유럽 방산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마주하는 주요 장벽

유럽 방산시장은 매력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제3국 기업에게는 구조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주요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 Areas

해외방산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Contact

정원 변호사

02-528-5283

wjung@yulchon.com

김만기 고문

02-528-5808

mkkim@yulchon.com

송광석 변호사

02-528-5189

kssong@yulchon.com

조희태 변호사

02-528-5431

htcho@yulchon.com

김난형 변호사

02-528-5701

nanhyungkim@yulchon.com

김태준 변호사

02-528-5562

taejunkim@yulchon.com

첫째, 유럽산 우선주의(European preference)의 강화입니다.

EU는 방산 R&D 및 조달을 유럽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DF(European Defence Fund), EDIP(European Defence Industrial Programme), SEAP(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 등 상위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EU 법인, EU 지배구조, EU 기반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EU 방산기술·산업기반(EDTIB)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제3국 기업의 직접 진입에 구조적인 제약이 됩니다.

둘째, 조달 구조상 유럽 프라임업체(체계종합업체) 중심 구조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개별국 조달이 아니라 OCCAR, EDA(European Defence Agency), PESCO 프로젝트 등 다국간 협력 구조로 운영되며, Airbus, Leonardo, Rheinmetall, Thales 등이 주도권을 보유합니다. 특히 EDA는 회원국 간의 공동조달과 능력개발(EU Capability Development Plan, CDP), 표준화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EDIP, SEAP 같은 EU 주요 방산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제3국 기업이 단독으로 유럽의 조달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셋째, 보안·정보보호·수출통제 규범의 엄격성입니다.

EU 및 NATO 수준의 보안 기준, 기밀자료 접근 통제, EU-해당국 간 보안정보협정(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체결 등이 필요하며, PESCO 프로젝트의 제3국 참여는 특히 강한 보안 요건을 요구합니다.

넷째, EU 역내 생산·투자 요구입니다.

유럽은 무기체계의 생산·정비·시험을 역내에서 수행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3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참여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 공동생산, 기술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럽 내에 일정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EDIP, SEAP 등에서 강조되는 '역내 공급망 확보' 및 '주요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공동조달' 정책과 맞물려 역내 생산 중심 구조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III. OCCAR 옴저버 제도와 PESCO 제3국 참여 제도 활용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유럽 방산시장 진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프로세스를 활용할 경우 제3국도 유럽 방산협력 구조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OCCAR 옴저버 제도와 PESCO 제3국 참여입니다.

1. OCCAR(Organisation for Joint Armament Cooperation) 옴저버 제도

OCCAR는 A400M 수송기, BOXER 장갑차, FREMM 호위함, Eurodrone(MALE RPAS) 등 유럽의 핵심 다국간 무기체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입니다. OCCAR의 규정서(OMP, OCCAR Management Procedures) 중 OMP 3-A(Observer Status)는 비회원국·비참가국이 특정 프로그램의 옴저버(Observer State)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OCCAR 옵저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회의(Programme Board 등) 참관 가능
- 제한적이지만 프로그램 기술·운영 정보에 대하여 접근 가능
- 유럽 참가국, 산업 주체와의 관계 구축 기반 마련

최근 일본, 인도는 Eurodrone 프로그램에 옵저버로 참여하여 유럽의 무인기 능력개발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제3국도 OCCAR 생태계 내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2. PESCO(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제3국 참여

PESCO는 EU 회원국 간 방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ESCO는 2020년 EU 이사회 결정(CFSP Decision 2020/1639)을 통해 제3국(Third State)의 프로젝트 참여 절차와 일반 조건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제3국이 PESCO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와의 정치·안보적 가치 및 원칙 공유
- 프로젝트에 실질적 부가가치(substantial added value) 제공
- 프로젝트가 기밀정보 교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 EU-해당국 간 보안정보협정(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또는 이에 준하는 체계 보유
- 프로젝트가 EDA의 지원을 받는 경우, EDA와의 행정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 체결
- 조정국(Coordinator State) 및 전체 PESCO 참가국(26개국)의 만장일치 승인

현재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가 Military Mobility 프로젝트 등에서 제3국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EU는 필요성과 신뢰 관계가 충족되는 국가에 대해 추가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IV. 시사점

OCCAR 옵저버 및 PESCO 제3국 참여는 모두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 제도이며, 방산기업이 직접 참여 주체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채널을 확보할 경우, 한국 방산기업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유럽 방산정책·기술표준·필요조건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유럽 프라임 및 중소 방산기업과의 네트워크·협력 기회 발굴
- 향후 공동개발·부품공급·산업협력 논의의 정식 파트너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일본,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 차원의 참여를 통해 유럽 프로그램과의 구조적 접점을 형성하면 제3국도 장기적으로 유럽에서의 산업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V. 결론

유럽 방산시장은 규모가 크지만, 제도적·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제3국 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OCCAR 옴저버 제도와 PESCO 제3국 참여 절차는 제3국이 유럽 방산협력 구조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경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들은 정부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한국이 이를 활용할 경우 유럽 방산 생태계와의 제도적 연결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방산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